

‘전광훈 주최’ 8·15 광화문 집회 광주·전남서 버스 7대 동원됐다

정의당 입수 자료...코로나, 진도·영광·나주 등 전남 곳곳 확산

코로나19가 진도, 영광, 나주 등 전남 구석구석까지 파고들고 있다.

〈관련기사 2, 4, 14면〉

최근 3일 연속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한 전남에서는 대전 확진자 일가족(4인)이 나주의 한 리조트에 최근 3일간 머물다 돌아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집단감염지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 주최의 광복절 서울 집회 참석을 위해 광주·전남에서 7대의 관광버스가 동원됐다는 정치권 주장까지 제기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장흥과 19일 새벽 영광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 45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 여성(장흥)이다.

전남 46번 확진자는 영광 거주 60대 여성이다. 14~16일 대구 진정집 방문 과정에서 여동생에게 감염됐다. 46번 확진자는 이날 새벽 1시 확진 판정 전까지 송정리 동생 집, 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고 마을 주민 3명과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주도 비상이다. 대전 확진자 일가족이 최근 3일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 머물다 돌아간 사실이 이날 확인됐

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대전 171~174번 확진자 일가족의 동선을 추적하며 추가 확진자 발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 확진자 가족은 16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리조트에 머물렀다. 리조트 측은 19일 오전 방역당국 통보를 받고 시설을 폐쇄했다.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혼란도 진행형이다. 특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 주도 아래 15일 열린 광복절 집회 불통도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다. “광주에서 1대, 전남에서 6대의 버스가 광복절 집회 참석자를 위해 동원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날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지난 15일 전광훈씨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라며 “정의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 최소 6대, 광주에서 1대의 버스가 동원됐다. 사도는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복절 집회 지역민 참석과 관련해 전남도는 집회 유지 관리를 위해 투입된 전남 경찰 57명을 제외한, 도민 참석자가 현재 34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협조 아래 참석자 조사를 진

행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에선 이날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또 나왔다. 246번째로 20대 남성이다. 광주 233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유흥업소발 확진자도 20명으로 늘었다.

광주시는 이날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 수도권 교회 방문자,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 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상무지구 유흥시설 확진자의 접촉자 등 1595명을 검사했으며, 1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중 2명은 3차 감염자로 ‘n차 감염’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 중 상당수가 아직 검사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6~16일 방문자는 23일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광주시가 명단을 통보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현재 35명으로 24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4명은 검사 중이다. 7명은 다른 시도로 이관됐다. 광화문 집회 참가 신고자는 59명으로 54명은 음성, 5명은 검사 중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사랑제일교회(7~13일), 경북공역 인근 집회(8일), 광화문 집회(15일) 방문자는 21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혁신도시 ‘부영 아파트 5000세대’ 도시계획 변경 돌연 입장 바꾼 나주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진행”

나주시의회가 부영주택(주)의 혁신도시 5000여세대 아파트 조성을 위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9일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11일 서면으로 받은 유권해석을 뒤늦게 공개하며 “시의회가 무작정 보이콧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골프장)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녹지에서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도시관

리계획안은 ‘부영에 수천여대의 특혜를 안기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집행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날 나주시의회가 공개한 국토부 답변서에 따르면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7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보냈으나, 지방의회가 상임위 상정을 거부하면 시장은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으나”고 질의했다. 국토부는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도록 하면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견 제시를 하지 않으면 집행부는 관련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과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도 “의회 차원에서 안건을 상정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국토부 유권해석에 동의하기 힘들다. 지역사회에서는 특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애초 방침대로 ‘시의회 의견 청취 보이콧’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상황이어서 나주시의회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빨라야 올 연말 집행부로부터 관련 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손영철 기자 khh@kwangju.co.kr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묘지서 무릎 꿇은 통합당 김종인

보수 정당 대표 첫 사죄
일부 정치인 막말·편협
반복 앓았다는 의지 밝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보수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동안 당내에서 벌어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막말에 대해 사죄하고, 향후 5·18과 관련한 편협·애국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탑에 헌화하고 15초가량 무릎 꿇고 묵념했다. 보수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추모탑 헌화에 앞서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

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의 문 앞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낭독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역에 이어 행방불명자 묘역에서도 묵념하고 헌화했다. “이름 없는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5·18 사죄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계획된 쇼’가 아닌 향후 5·18 관련법 개정과 진상규명,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등에 진실된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의 참회 발언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통합당의 호남 민심 구애 차원의 일회성 발언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5·18 관련법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5·18에 대한 편협과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 의원들 및 당 관계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전일대학가요제’를 아시나요	▶16면
KIA 챔피언스 관중석 다시 닫힌다	▶18면

사람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지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8월 20일 오픈
T.372-6666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업조건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금관련 등 정부정책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보호를 위해 법정쟁점(단위)을 사용했습니다. ※ 리플렛형 미디어 파사드는 예정된 사항이므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삼건설 KAIT 한국자산신탁
새삼건설 K&A 한국자산신탁

홍보관: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